

6·25 事變後의 韓國圖書館 (上)

… 1950~1965 …

朴 熙 永

(韓國外國語大學圖書館司書長)

< 目 次 >

1. 新圖書館學導入의 始作
2. 海軍士官學校圖書館
3. 韓國圖書館協會
4. 新圖書館學의 樹立
 - a) 外國留學 및 視察
 - b) 講習會
 - c) 大學圖書館學科
 - d) 其他의 教育
 - e) 著述

1950年 6月 25日에 勃發한 6·25事變으로 因하여 全國的으로 各 分野에서 人은 被害는 莫甚하였다. 따라서 圖書館界도 人的 物的으로 甚한 被害를 입었던 것이다.

圖書館界가 人은 被害에서 人的인 面으로는 1945年 以後 1950年 6·25事變 勃發時까지 圖書館界의 指導者 이었던 國立圖書館長 李在郁氏, 國立圖書館副館長 朴奉石氏, 그리고 金晉燮氏等 諸氏가 모조리 拉北되었으니 圖書館界는 指導者를 一時에 모다 잃었으며 以上 述한 諸氏 以外에도 圖書館事業에 從事하던 여러 人들을 圖書館界로부터 잃었다. 한편 國立圖書館學校에서 養成된 젊은 圖書館人들 中 많은 人들이 軍에 入隊하였거나 또는 다른 分野로 轉職하였던 것이다.

物的인 面으로서는 建物の 被害는 別로 記錄할 被害를 입지 않았으나 藏書의 被害는 甚하였던 것이다. 특히 延禧大學校 高麗大學校 梨花女子大學校等 오랜 歷史를 가진 大學들의 圖書館藏書中에는 學界에 紹介된 貴重한 圖書들이 있었으나 그것들이 全部 散逸되었고, 여러 公共圖書館들도 많은 藏書를 잃었던 것이다. 그러나 가장 많은 藏書와 寶庫인 奎章閣藏書를 가진 서울大學校圖書館의 藏書가 損失이 없었고 또 國立圖書

館의 많은 藏書가 穩全하였던 일은 至極히 多幸한 일 이었다고 아니 할 수 없다.

6·25事變으로 因하여 人的, 物的으로 많은 것을 잃은 圖書館界는 6·25事變을 치른 後 많은 것을 잃은 反面에 많은 것을 얻었던 것이다. 即 새로운 圖書館學이 導入되었고 4個大學에 圖書館學科가 設立되어 젊고 有能한 圖書館專門人이 養成되고 있으며 大小圖書館이 여러 곳에 새로이 建築되어 6·25事變以前의 圖書館界와는 比할 수 없을 만큼 發展하여 새로운 모습의 圖書館界가 이룩되었던 것이다. 韓國의 圖書館界는 6·25事變으로 因하여 잃은 것에 比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것을 얻어 새로운 方向으로 새로운 方法에 依하여 發展하게 되었다.

6·25事變以前의 圖書館界는 極히 鎖國的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即 外國의 圖書館界에 關한 情報, 情勢에 對하여 그 무엇 하나 아는 것이 없이 孤獨하게 運營되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第二次世界大戰을 치르고 난 世界各國의 發展하고 研究되고 있던 圖書館學의 모습과 圖書館界의 事情을 全然 모르고 있었으니 韓國의 圖書館學과 韓國의 圖書館界는 世界에서 孤立되고 있었던 것과 다름이 없었다.

6·25事變中 全圖書館은 完全히 閉館하고 있었다. 1951年 1月 所謂 1·4後退時에는 國立圖書館과 서울大學校圖書館은 그 藏書中 貴重한 것을 選定하여 釜山으로 移送하였고 國立圖書館은 釜山市立圖書館으로 서울大學校圖書館은 釜山の 慶南道廳으로 各各 避難하여 收復의 날을 기다리고만 있었다.

1. 新圖書館學導入의 始作

熾烈한 戰爭을 겪고 있으면서 韓國의 圖書館界는 外國의 새로운 圖書館學이 導入되기 始作하였다. 即 申載淑氏(現在 巴里 UNESCO 本部圖書館에 勤務中)가 美國에서 一年間 圖書館學을 修業하고 歸國하여 釜山

U.S.I.S.圖書室에서勤務하였고申載淑氏에 뒤이어李鳳順氏(現在梨花女子大學校圖書館長兼同大學校圖書館學科科長)가 1954年美國인디애나大學에서圖書館學으로碩士學位를得하고歸國하여母校인梨花女子大學校圖書館을 맡았는데 1955년부터는同大學에다將次圖書館學科의設置를計劃하면서同大學教養學部에서圖書館學을講義하였다. 이것이韓國에 있어서大學에서圖書館學을講義한嚆矢인 것이다. 이리하여韓國에서 새로운圖書館學의 불이 켜졌고 이분들의努力으로圖書館學圖書館界가 새로운方向으로 움직이기始作하였던 것이다.

2. 海軍士官學校圖書館

戰禍中에서도健全하게 움직이고 있었고戰後의圖書館界에 조금이라도貢獻할 수 있었던圖書館이 있었다면 그것은海軍士官學校圖書館이었다고 말하겠다.

海軍士官學校는慶南鎭海에所在하고 있었던關係로戰爭으로因한被害가殆無하였던機關이어서따라서同校의圖書館도別로被害가 없었던 것이다.

海軍士官學校圖書館의館長은創立以後現在에이르기까지崔震武氏가맡았는데(1954年4月부터1955年4월까지一年間崔震武氏의身病으로筆者가補職되었음)崔震武氏는圖書館學을專攻한분은아니나그러나革命家의子弟답게그분의圖書館建國論은大端하였고따라서圖書館에對한熱意는그누구에게도못지않은분이다.崔震武氏는事變으로因하여 묻혀있는圖書館의일꾼을찾아다녔는데第一처음만난분이高在昶氏이다.高在昶氏는國立圖書館學校第1回卒業生으로서同校를卒業한後釜山水產大學을爲始하여光州醫科大學,中央大學校等各大學圖書館을轉轉하면서創設業務에從事하다가事變으로圖書館業務가中斷되어일할수있는圖書館을찾고있었던當時였기때문에崔震武氏를만나서곧鎭海로가게되었다.

崔震武氏와高在昶氏는當時戰爭이란客觀的인與件으로圖書館事業이一時中斷되고있었으나그當時로서해야할일,할수있는일이무엇인가를相議한結果 얻은結論은다음과같았다. 첫째終戰後의圖書館界에서일할수있는役軍을모으고또圖書館에對하여熱意를갖도록宣撫하는일, 둘째는戰爭으로因한圖書館界의空白期를最善의機會가되도록利用하는일인데이는即外國에連絡할수있는最大限連絡을取하여새로운圖書館學에關한資料를蒐集하고圖書館界에關한情報를蒐集하여이것들을研究하는일, 셋째새로이얻은知識과研究한結果를海軍士官學校에서實驗하여將次戰爭이끝난後를對備하는것이였다.

議論된첫째일에對하여서는崔震武氏는高在昶氏를만나다음두번째로만난사람이當時國防部第一局에서勤務하던筆者이었다.筆者(筆者는高在昶氏와國立圖書館學校第1回同窓임)도崔震武氏와함께鎭海로갔다.이어서全永權氏(現在徽文高等學校教師인데事變中海州가收復되면서海州市立圖書館長이었음)가鎭海로갔고全永權氏의紹介로金京一氏(全永權氏와함께海州市立圖書館에勤務하였는데京畿中等學校圖書室을創設하였고現在中央教育研究所에勤務中)가鎭海로갔고다음은故南英祐氏(收復後國立圖書館, 서울文理師範大學圖書館, 徽文中高等學校圖書室)가鎭海로갔다.이분들以外에도故金甲童氏(慶熙大學校圖書館)申瑗煥氏(國立圖書館學校第4回卒業生釜山市立圖書館勤務現在家庭主婦)도鎭海에모이게되었다.

둘째일에對하여서는外國에連絡하여資料를蒐集하였는데Dewey分類表, Cutter著者記號表L.C.目錄規則L.C.主題名標目表日本十進分類法等等을비롯하여많은改訂된資料新刊圖書館關係圖書圖書館學關係定刊書가모이게되어이中몇가지는翻譯도하고參考하여海士用分類表海士用目錄規程이編著되었다.

셋째일에對하여서는編著한分類表目錄規程으로整理가始作되었다.圖書記號는著者の姓의첫머리부터三字를따서使用하였다.收書事務處理를爲始하여여러事務處理에있어在來의方式과는다른새로운方式을創案또는模倣하였다.閱覽方式은完全한開架式을擇하였는데이와같이在來의韓國의圖書館界에서使用하던方式과는달라서自信이없으면서도大膽하게試驗하였다.目錄에있어서는書名主記入을버리고著者主記入으로하였는데書名主記入과著者主記入이란問題는지금으로서는何等問題가成立되지않는일이지만當時로서는大端한問題이고一大英斷이라고말할수있었다.

同圖書館은海軍士官學校의教育目標에立脚하여忠武公李舜臣將軍에關한資料를蒐集하는데盡力하여많은것을蒐集하였고備品調辨에있어서外國에다備品設計圖를注文하여이를參考하여調辨하여작으나마圖書館으로서의面貌를갖추게되었다.

外國의그것을여러資料로서알고난高在昶氏는앞날의圖書館界에對하여甚히悲觀하고있었으므로崔震武氏는高在昶氏로하여금外國에留學케하여더욱研究토록하고자努力한結果UNESCO獎學金으로高在昶氏는1955년부터1年間뉴질랜드圖書館學校에留學하게되었다.

當時를回顧하여崔震武氏는아래와같이述하고있다.
「高在昶氏를비롯해서朴熙永,南英祐,金京一氏等앞날의韓國圖書館界의開拓者가되기를自負하는情

熱에 불타는 일꾼들이 차례차례 모여들어 創意性있는 일을 積極的으로 展開해 보느라고 무척 애썼습니다.

日本과 美國을 來往하는 艦艇便에 우선 圖書館學에 關한 文獻들을 求해 다 놓고 熱心히들 研究했습니다.

分類表, 目錄規則等 다 새로 만들어 보느라고 힘을 썼습니다.

(中略) 그때 그들의 그 情熱은 還都後에도 繼續되어 우리나라 圖書館界 再建에 큰 役割을 할수 있는 海士圖書館의 자랑스러운 한 page 가 아닐수 없습니다.

(中略) 그들이 남기고 간 業績을 지금도 지키고 있는 저로서는 그들의 勞苦가 헛되지 않고 기리 記念되도록 잘 지키고 더욱 發展시켜야겠다는 責任感을 切實히 느끼는 바입니다.」

3. 韓國圖書館協會

戰火속에서 滿3年을 지낸 1953年 7月 27日 休戰協定이 調印되어 戰爭은 一段 끝났다. 그리하여 政府 및 國會가 還都하였고 따라서 모든 機關이 正常化하여 1955년에는 韓國圖書館協會가 結成되었고 圖書館界는 同協會를 中心으로 하여 發展하게 되었다.

慶州에서 圖書館을 私立으로 設立 運營하다가 邑立으로 넘긴 慶州邑立圖書館長 嚴大燮氏가 서울로 上京하여 여러 圖書館을 찾아 6·25事變에서 남은 圖書館人들을 尋訪하면서 圖書館協會를 結成하고자 努力하여 드디어 1955年 3月 16日 서울의 各 圖書館代表者가 會合 懇談하기에 이르렀다. 이 모임이 數次 有은後 6·25事變前의 朝鮮圖書館協會는 自然消滅한 것으로 認定하고 同懇談會를 韓國圖書館協會創立準備委員會로 名稱을 定하고 協會를 結成하자는 結論을 지웠다. 이 當時 嚴大燮氏는 멀리 鎮海에까지 찾아가서 海士圖書館員들 과도 議論하였고 嚴大燮氏는 筆者와 함께 會則을 草案하여 다시 上京해서 同年 4月 16日 國立圖書館에서 創

立總會를 開催하였는데 京鄕各地로부터 98名의 圖書館人이 參加하여 韓國圖書館協會가 結成되었다. 同總會 席上에서는 會則을 審議 決定하였고 會則에 依하여 任員을 選出하였는데 選出된 任員은 다음과 같았다.

- 會 長 趙根泳(國立圖書館長)
- 專務理事 李鳳順(梨大圖書館長)
- 理 事 具泰會(서울市立南大門圖書館長)
- 〃 金鍾洙(全南大學校圖書館長)
- 〃 朴相培(釜山市立圖書館長)
- 〃 沈鍾悅(國會圖書室長)
- 〃 沈仁坤(延禧大學校圖書館長)
- 〃 嚴大燮(慶州邑立圖書館長)
- 〃 吳泰鎮(陸軍士官學校圖書館長)
- 〃 李揆東(慶北大學校圖書館長)
- 〃 張仁植(仁川市立圖書館長)
- 〃 鄭光鉉(서울大學校圖書館長)
- 〃 韓相惠(全北道立圖書長)
- 〃 洪尙舜(韓國銀行圖書館長)

幹 事 嚴大燮(兼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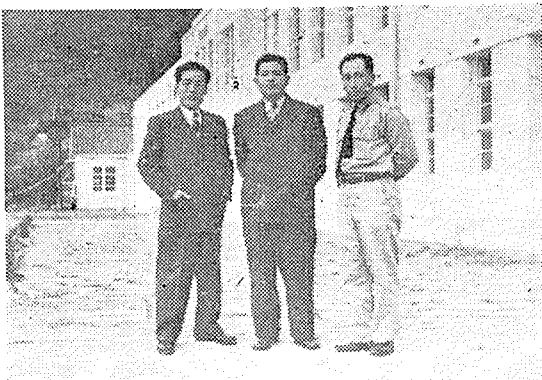
以上이 創立總會에서 選出된 任員인데 이를 參考로 中央과 地方을 比해서 圖表해 보면 다음과 같다.

	中 央	地 方	計
公 共	2	4	6
大 學	3	2	5
特 殊 官 公 器	1		1
軍 部	1		1
銀 行	1		1
計	8	6	14

同 總會席上에서 決議된 文教部長官과 國會文教委員長에게 提出된 決議文은 다음과 같았다.

1. 圖書館法을 早速히 制定公布할것.
2. 圖書館學校의 設立을 促進하기 爲하여 圖書館學을 專攻할 留學生을 海外에 派遣할것.
3. 各道에 道立圖書館을 年次計劃으로 每年 1個館式 設置할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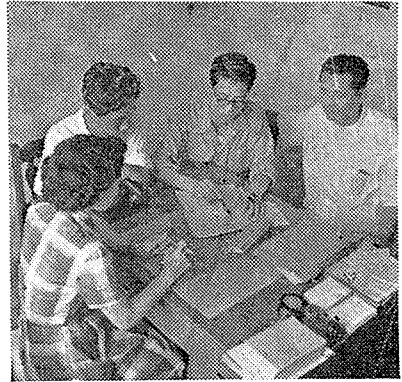
結成된 協會는 國立圖書館 二層 廊下一偶에다 事務室을 定하고 冊床, 椅子等 몇個의 備品을 國立圖書館으로 부터 貸與받았는데 단 一원도 없는 財政狀態에서 事務를 開始하였다. 協會가 結成되기까지도 그러했지만 結成後 本軌道에 오르기까지 無에서 有를 生産한 協會는 嚴大燮氏의 犧牲이 없이는 어려웠던 일임을 생각할때 協會發展에 이바지한 嚴大燮氏의 功은 至大한 것이었다.



會則抄案을 마치고 (1955年 4月 中旬)
左로부터 筆者, 嚴大燮, 崔震武

創立總會에서 決議된 對政府 對立法府 建議는 建議로서 끝내지 않도록 이들 問題의 解決을 爲하여 同協會는 活動을 始作하였다. 同年 5月 1日 文教部長官, 內務部長官, 國會文教委員長에게 各各 建議書를 提出하고 나서 建議한 內容을 分離하여 解決方法을 研究 解決토록 努力하였다. 첫째 問題인 圖書館法에 對하여서는 우선 嚴大燮氏와 筆者가 圖書館法起草委員이 되어 全文 4章 13條로 된 圖書館法草案을 起草하여 同年 7月 3日 文教部에다 提出하면서 부터 始作된 圖書館法制定問題는 滿 8年이 지난 1963年 10月 28日 法律 第 1,429號로서 圖書館法이 公布되었고 1965年 3月 26日 字 大統領令 第2,086號로서 圖書館法施行令이 公布되었고 1966年 3月 23日 字 文教部令 第172號로서 圖書館法施行規則이 公布하기에 이르렀는데 同圖書館法에 對하여 若干의 未備한 點이 없지 않으나 圖書館法을 가지게 되었고 圖書館이 法的인 根據위에 서게 되었다. 둘째 圖書館學校 設立問題에 對하여 同協會는 外國財團의 援助를 받아 設立하고자 當時 韓美財團에서 勤務하던 申載淑氏와 이 問題를 相議하였다. 그리하여 李鳳順氏, 嚴大燮氏, 金重漢氏(當時 延大圖書館에 勤務하였는데 S.G. Akers의 Simple library cataloging과 Dewey의 Decimal classification을 翻譯하였고 現在 美國에서 博士學位를 得하고 大學에서 講義하고 있음) 그리고 筆者가 援助要請文을 起草하였는데 처음에 作成된 要請文의 內容은 두가지의 援助를 要請하였다. 첫째는 圖書館員을 養成하는 問題로서 圖書館學校를 設立하고자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公共圖書館의 建物を 많이 가지기에는 戰後의 財政上 또는 其他 여러 事情으로 어려우니 Mobile library가 効果的이라고 強調하고 各道에 Book mobile을 換臺式 援助해 달라는 것이었다. 後에 Book mobile問題는 除外가 되고 圖書館員養成問題만이 論議하게 되었다.

當時 梨大에서는 前述한바와 같이 이미 教養學部에서 圖書館學을 選擇科目으로 教授하고 있었고 延大에는 圖書館學을 專攻한 Elrod氏와 圖書館學을 研究하는 金重漢氏가 있었기 때문에 教授陣等을 考慮하여 延大와 梨大 中間에다 두 大學이 會同으로 大學課程의 圖書館學校를 設立토록 合議를 보고 이 問題가 推進되었다. 當時 協會長인 趙根泳氏, 李鳳順氏, 嚴大燮氏, 엘르드氏 및 申載淑氏가 韓美財團事務室에서 數次會議를 가졌는데 韓美財團의 Dr. Freser도 이 問題에 對하여 大端히 興味를 가지고 있다가 任期가 滿了하여 歸國하기 直前に 當時 O.E.C.教育處長 Dr. Wood가 이 問題를 推進하여 불 意思를 表明하였기 때문에 圖書館員養成機關設立問題는 韓美財團으로부터 O.E.C.로 移管하



AKF 要請文을 抄案하면서 (1955年 7月頃)
左로부터 李鳳順, 筆者, 金重漢, 嚴大燮

게 되었다. 그리하여 O.E.C.는 延世大學校와 美國피바디 師範大學과 因緣을 맺어 주어 Swiger 女史가 來韓하게 되었다. 1957年 延世大學校에 4年制大學課程의 圖書館學科와 現職圖書館員에게 專門教育을 하는 圖書館學堂이 設立하기에 이르렀다.

現在 四年制大學課程의 圖書館學科가 四個大學에 設立되고 있는데 1957年 設立한 延大에 뒤이어 1959年에 梨大에 設置되었고 1963年에 中央大學校 그리고 1964年에 成均館大學校에 各各 設置되었다. 碩士學位課程은 1957年에 延大에 設立되었고 1959년에는 梨大에 各各 設置되었다.

同協會는 急先務로서 全國 圖書館의 實態를 把握하기 爲하여 1955年 7月 2日 第1回 全國圖書館實態의 調査를 實施하여 各個圖書館의 實態와 아울러 全國의인 綜合統計를 完了하였다. 同年 10月 1일부터 18日間 現職 圖書館員의 質的인 向上을 圖謀하여 亞細亞財團, 韓美財團, 國立圖書館으로부터 經費의 援助를 받아 圖書館實務講習會를 開催하였는데 80名이 100時間의 講習을 받았다. 同講習會에서 特記할 일은 地方圖書館으로부터 參加한 受講者에 對하여 各各 2萬圓式을 旅費補助한 일이라고 하겠다.

同協會는 對外的인 行事로서 同年 11月 21일부터 7日間 大韓出版文化協會와 同協會가 共同으로 讀書週間을 主催하였는데 同行事は 國民에게 讀書熱을 鼓吹하는 한편 圖書館에 對한 認識을 가지게 하는데 注力하였던 것이다. 한편 國際的으로는 同年 9月 8日 同協會가 國際圖書館協會聯合會(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略 I.F.L.A.)에 加入하였다.

同協會는 1956年 事業展開를 爲하여 任意團體였던 것은 社團法人으로 組織을 變更하였고 1955年 I.F.L.A. 加入에 뒤이어 또하나의 國際團體인 亞細亞圖書館協會聯合會(Asia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略 A.

F.L.A.)創立에 參劃하였는데 1957年 11月 4日부터 東京에서 開催되었던 同聯合會의 創立總會에는 同協會 專務理事 李鳳順氏와 理事 金元圭氏(當時 서울中, 高等學校長)을 派遣하였다. 1956년에는 同協會는 各種委員會를 中心으로 하여 여러 事業을 推進하고자 8個의 委員會를 組織하였는데 當時 選出된 委員長은 다음과 같다.

- 分類委員長 高在昶(國會圖書館圖書課長)
- 編目委員長 朴熙永(梨大圖書館司書長)
- 術語委員長 李鳳順(梨大圖書館長)
- 建築用品委員長 張瑋性(國立圖書館司書官)
- 出版委員長 白麟(서울大學校圖書館司書課長)
- 法制委員長 金聖源(國會圖書館閱覽課長)
- 教育委員長 鄭弘燮(國立圖書館長)
- 文獻行政委員長 金敬洙(國會圖書館長)

結成된 同協會는 6·25事變 以前の 協會와는 全혀 달랐다. 圖書館界는 協會를 中心으로 叫合 團結하여 圖書館建設의 意慾은 날로 높아갔고 獻身코자 하는 圖書館人의 數는 날로 많아져 갔다. 同協會는 每年 定期的으로 讀書週問과 實務講習會와 實態調査等 여러 事業을 繼續하였다. 出版事業으로 于先 機關誌를 發行하였는데 1957年 7月 第1號 20p 를 謄寫로써 發行하여 1958年 8月 第8號로서 中斷하였다가 1959年 2月 콜로타이프版을 謄寫로써 다시 發行하다가 1959年 12月 第11號로 또 다시 中斷한 後 1960年 3月부터는 活版印刷로 發行하여 其後 繼續 發行하고 있다. 一般出版物로서 1959年에 謄寫로써 239p 의 「圖書館用語集」을 發行하고 1962年 「解說을 붙인 圖書館用語集」 282p 를 亦 謄寫로 發行하였다. 1964년부터는 委員會 事業이 더욱 活潑해져서 많은 成果를 거두었는데 主要한 것을 추리면 다음과 같다.

- 韓國十進分類法 670p
- 韓國目錄規則 130p
- 學術雜誌索引 1960 414p
- 〃 1961—1962 790p
- 學校圖書館의 施設 166p
- 選定圖書目錄 500p

等 巨創한 出版物을 編纂 出版하여 圖書館으로서 가져야 할 基本資料와 奉仕資料를 完成하였다. 以上과 같은 여러 出版物은 各 委員들의 甚히 奔走한 中에서도 犧牲의인 精神과 놀라운 努力에 依하여 完成되었다.

4. 新圖書館學의 樹立

a) 外國留學 및 視察

새로운 圖書館學의 導入은 1950年 以後의 일이다. 外

國의 새로운 圖書館學을 輸入하기 爲하여 留學하여 研究하였던 國家는 거의 美國이었다. 外國의 圖書館學을 修學하고 돌아와서 다른 分野에서 活躍하는 사람도 여러 명 있으므로 여기서는 歸國하여 現在 國內圖書館事業에 從事하는 분단을 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姓名	留學年	現 在
李鳳順	1950—1954	梨大圖書館長
張一世	1957—1958	國立圖書館司書課長
李鍾文	1958—1959	鍾根堂製藥社圖書室長
朴恩子	1958—1959	延大圖書館
元鍾麟	1959—1960	公州敎大圖書館長
朴東棟	1959—1960	春川敎大圖書館長
李漢龍	1959—1960	延大圖書館學科
明在暉	1960—1961	延大圖書館學科 1965 再次留學中
李載喆	1961—1962	延大圖書館學科

美國國務省의 招請交換計劃에 依하여 渡美하였던 分을 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姓名	滯留年	現 在
李春熙	1959—1960	成均館大學圖書館學科
朴啓弘	1961—1962	韓國研究院司書長
文炳旭	1963—1964	大邱 U.S.I.S.

다음은 外國을 視察한 分을 추려 보면 金世翊氏(梨大圖書館司書長)李鍾文氏 李春熙氏等 諸氏가 美國을 爲始하여 歐羅巴 및 東南亞諸國의 圖書館界를 視察하고 歸國하였다.

여기 記述한 以外에도 많은 분이 留學하였었는데 一時 歸國하여 圖書館界 發展에 寄與하다가 다시 外國圖書館界로 나가신 분 修學이 끝나고 그 나라에서 活躍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現在 많은 사람이 修學하고 있다.

b) 講習會

以上の 여러분들이 外國으로 부터 새로운 圖書館學을 배워왔고 새로운 圖書館學에 立脚한 새로운 圖書館을 보고 돌아와서 韓國의 새로운 圖書館을 樹立하는데 努力하였는데 國內에서 研究한 分들과 合流하여 現職 圖書館員에 對한 教育으로 實施한 講習會의 講座內容을 살펴보면 1954年 圖協이 結成되기 前年度에 國立圖書館主催로서 18日間에 걸쳐 108時間의 講習이 있었고 1955年 圖協이 結成된 後 1964년까지 10회에 걸쳐 實務者講習會가 開催되었다. 그러나 圖書館法이 公布된 後인 1965년에는 正司書資格取得을 위한 講習會로 되었는데 다음에 圖協이 主催한 10회에 걸쳐 講習會 講義科目과 時間數를 表로써 對比하여 본다면 다음 表와 같다.

圖協主催 實務者講習會 教科目 對比表

回数	期間	科 目	總時間
1	1955 10·10) 10·27	圖書館管理 2, 選擇·收書 4, 分類目錄概論 3, 東書分類目錄 35, 西書分類目錄 35, 目錄編成 1, 古書分類目錄 5, 參考業務 3, 定刊書 및 팜플릿整理法 2, 閱覽 2 圖書館用品 및 簡易製本 4, 特講 5.	100
2	1956 10·22 ~ 10·31	管理 3, 整理 38, 參考 2, 特講 7,	50
3	1957 12·16) 12·21	圖書館管理法 3, 分類學概論 5, 東書分類와 編目法 8, 西書分類와 編目法 7, 圖書館資料 및 參考業務 5, 特講其他 10,	36
4	1959 11·17) 11·26	圖書館管理法 4, 圖書選擇 2, 分類編目比較論 1, 東書分類編目 13, 西書分類編目 12, 參考業務 3, 圖書以外資料整理法 4, 書誌學 2, 特講其他 7.	48
5	1960 10·31) 11·9	圖書館通論 5, 東書分類編目 18, 西書分類編目 18, 古書 4, 特講 5,	50
6	1961 11·17) 11·26	圖書館學概論 10, 東書分類編目 15, 洋書分類編目 15, 古書의 分類問題 2, 特講其他 8,	50
7	1962 11·5) 11·15	普通班: 圖書館管理 10, 資料選擇 9, 分類(主類) 15, 目錄(記述) 15, 參考業務 5, 特講 6.	60
		專門班: 分類에 있어서의 諸問題 8, 目錄카드 排列問題 10, 目錄에 있어서의 諸問題 8, 古圖書整理	60

		10, 視聽覽資料 10, 目錄카드의 複製問題 8, 特講 6.	
8	1963 6·10) 6·22	圖書館運營 11, 分類의 諸問題 10 카드配列法 4, 目錄의 諸問題 10, 古圖書 8, 參考業務 12, 圖書以外의 資料 10, 特講 3,	68
9	1963 11·28) 12·7	普通班: 圖書館管理 10, 資料選擇 8, 分類(主類) 15, 目錄(記述) 15, 參考業務 10, 特講 2,	60
		專門班: 圖書館管理 10, 分類의 諸問題 12, 目錄의 諸問題 12, 古圖書의 整理 8, 參考業務 10, 圖書以外의 資料 6 特講 2.	60
10	1964 10·27) 11·7	普通班: 圖書館管理 10, 資料選擇 8, 分類概論 15, 目錄概論 15 參考業務 10, 特講 2,	60
		專門班: 圖書館管理 10, 分類의 諸問題 12, 目錄의 諸問題 12, 古書의 整理 8, 參考業務 10, 非圖書資料整理 6. 特講 2.	60

c) 大學圖書館學科

前述한바 있거니와 現在 4個大學에 4年制 大學課程의 圖書館學科가 設立되어 있고 碩士課程이 2個大學에 設立되어 있다.

設立年	大 學 名
1957	延世大學校
1959	梨花女子大學校
1963	中央大學校
1964	成均館大學校

이中 많은 圖書館 專門職을 養成하여 圖書館界에서 活躍하게 한 延大와 梨大의 教授科目을 1964年度의 一覽으로 對比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4 年 制 課 程 教 科 目 對 比 表

延 大			梨 大		
學 年	科 目	學 點	學 年	科 項	學 點
1 學年	없음(專攻)		1 學年	圖書館學概論	2
				圖書館史	2
				漢 文	4

2 學年	專必	韓國典籍解題	3	2 學年	分類學概論	2
		圖書館學通論	3		目錄學概論	2
		東洋典籍解題	3		原書講讀	6
	專選	美術鑑賞	2		漢文	4
		初級日本圖書 I, II. 兒童圖書	6 3		打字術	2
3 學年	專必	圖書館의 組織과 管理	3	3 學年	西書分類編目	3
		圖書의 選擇과 蒐集	3		東書分類編目	3
		分類와 目錄法 I, II. 參考奉仕	6 3		圖書選擇	3
		圖書館史	3		公共圖書館組織 및 運營	3
	專選	學校圖書館奉仕	3		學校圖書館組織 및 運營	3
		人文科學書誌	3		兒童圖書選擇	3
		圖書 및 印刷史	3		圖書館과 社會	3
		高級日本圖書 I, II.	6		非圖書資料	3
					參考資料 및 參考業務	3
4 學年	專必	圖書館實習(14日間)	1	4 學年	書籍 및 印刷史	3
		大學圖書館奉仕	3		大學圖書館組織 및 運營	3
	專選	公共圖書館奉仕	3		書誌學	3
		社會科學書誌	3		社會科學書誌	3
		自然科學書誌	3		人文科學書誌	3
		非冊子資料	3		自然科學書誌	3
		目錄의 特殊問題	3		視聽覺資料	3
		圖書館奉仕의 特殊問題	3		東洋書誌	3
					青少年文學	3
		實習	4			

d) 其他의 教育

前述한 以外에도 延世大學校圖書館學堂(韓國圖書館學校의 後身)에서는 1957년부터 3年間 實施한 1年課程의 教育과 土曜課程이라는 名稱의 教育을 實施하여 많은 人材를 養成하였고 時代的인 要請에 따라 司書教師를 養成하는 八週間課程이란 教育을 延大, 梨大에서 實施하여 많은 司書教師들이 養成되어 學校圖書館發展에 寄與하게 되었다. 司書教師를 爲하여 1959년부터 1962年에 이르는 사이 피바디教育使節團의 短期 地方巡回講習會가 各道別로 實施되었고 또 地區別로 自體講習會가 開催되어 司書教師의 質的인 向上에 努力하였던 것이다. 1年課程과 司書教師에 對한 8週間課程의 教科目을 對比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1 年課程教科目對比表

延世大學校圖書館學堂			
1 年 課 程	學點	土 曜 課 程	學點
Organization & Administration	2	圖書館組織과 運營	2

Acquisition	2	資料의 選擇과 蒐集	2
東書分類目錄	4	分類 및 編目 I	3
西書分類目錄	6	分類 및 編目 II	3
		分類 및 主題名作業	2
		記述目錄法	3
書誌學史	3		
東洋書誌	4	東洋書誌學史	2
		韓國圖書解題	2
Introductory of Reference	3	參考業務	3
Advanced Reference	2		
Non-book materials	2	非圖書資料	3
Bibliography of Science and Technology	1	人文·社會 自然科學書誌	3
Library Seminar	1	大學圖書館行政	2

8 週間課程教科目對比表

司書教師課程		
延世大學 (1963)	梨大 學點	每週時間
圖書館組織 및 運營	3	學校圖書館을 中心으로 한 運營法 5
圖書選擇 및 收書	1	圖書倫理 1
分類編目	5	圖書選擇(一般) 4
參考業務	4	分類 및 編目 9
視聽覺資料	1	
圖書館使用教育	1	圖書館利用法 3
非冊資料	1	
兒童圖書	1	兒童圖書 3
圖書 및 印刷史	1	
特講 및 見學		書誌學 3
		特講 1
		見學 1
18學點		每週 30時間

e) 著述

1957年 延世大學校에 圖書館學科가 設置되고 外國에 留學한 圖書館人의 數가 增加하면서 부터는 圖書館學에 關한 研究가 盛하여 그 結果가 著書로서 發行되었다. 이를 發行된 年度順으로 본다면 다음과 같다.

著書名	發行年
海士圖書館譯 커터著者二位表의 使用法	1953
延大圖書館學校 韓國參考圖書解題	1958
張一世 學校圖書館運營指針	1959
S.G. Akers 著 金重漢譯 簡易圖書館資料目錄法	1959
李載喆 主題名目錄의 研究	1959

(10面에서 繼續)

ㄴ. 兒童生活面에 미치는 影響

- (一) 言語가 醇化된다.
- (二) 인사성이 밝아진다.
- (三) 民主市民의 態度가 길러진다.
- (四) 受容性이 높아진다.
- (五) 判斷力, 批判力이 길러진다.
- (六) 遵法精神이 길러진다.
- (七) 同情心, 正義感이 強해진다.
- (八) 創意性이 높아진다.
- (九) 責任感이 強해진다.
- (十) 忍耐性이 強해진다.

2. 結論

- ㄱ. 學校圖書館은 學習에 必要 不可缺한 모든 資料를 提供한다.
- ㄴ. 學校圖書館은 自學自習의 源泉이 된다.
- ㄷ. 學校圖書館은 Personality에 必要 不可缺한 營養素와 人間形成의 活力素를 供給한다.
- ㄹ. 學校圖書館은 民主市民 育成의 殿堂이 된다.

Lilrary of Congress 白 麟 譯	中國, 日本 및 韓國資料의 目錄을 爲한 豫備規則과 便覽	1959
M. Dewey 著 延大 譯	듀이十進分類法	1959
R.S. Burgess 慶南教育研究所	分類目錄 學校圖書館經營의 實際	1960
M.P. Douglas 著 金泰律 譯	司書教師핸드북	1961
李載喆	主題名標目表	1961
P. Butler 著 劉永玟 譯	圖書館學概論	1961
李鍾文	國立中央圖書館의 機能比較	1961
張一世 譯	美國議會圖書館記述目錄規則	
白麟	奎章閣藏書에 對한 研究	1962
千惠鳳	古書目錄에 있어서의 當面한 諸問題	1962
明在暉	圖書館의 管理上組織	1962
任鍾淳	分類法比較研究	1963
S. Lubetzky 李載喆 譯	目錄規則	1963
李丙洙	圖書分類導論	1963
鄭駭謨	圖書分類法概論	1964
李炳穆	韓國의 大學定期刊行物	1964
張一世	東洋書著者記號表	1965
教育大學 圖書館學 研究會	學校圖書館	1964
安永柱	韓國에 있어서 大學圖書館奉仕의 效果에 關한 研究	1965

《參考文獻》

1. 도협월보
2. 國會圖書館報

ㄹ. 學校圖書館은 教育을 傳統的인 教育에서 進歩的인 教育으로 近代化시킨다.

3. 提言

以上은 圖書館 利用 指導에 있어서 圖書館이 미친 一般的인 影響을 調査해 본것인데 그 問題에도 研究할 點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나 앞으로 一層 研究해야 할 問題는 各教科에 直結되는 學校 圖書館問題요, 지금 麗水東國民學校가 繼續研究로써 내세운 標準圖書選定의 問題요, 끝으로 重要한 것이 讀書指導를 適한 性格指導의 問題라고 생각하면서 이에 對한 研究가 있기를 期待해 마지 않는다.

《參考資料》

1. 學父兄相對調查 麗水東國民學校 金重善 外 同校 四·五·六學年 擔任教師
2. 教師相對調查 麗水東國民學校 金基相 外 同校 四·五·六學年 擔任教師